



#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이려화(중앙대학교)\*

이희수(중앙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전개되는 학습활동의 양상과 특성을 규명하여 평생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자료는 생협이라는 평생학습공간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험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주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력 단절여성들이 생협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7가지 요소(계기, 모임, 활동, 긍정성, 부정성, 강화, 격려)에 적합한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교육장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협의 교육현상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협 내에서의 교육 활동의 평생교육적 함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주제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 교육장치, 평생 학습공간

## 1. 서론

일찍부터 평생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전 생애에 걸쳐서, 공간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및 학습활동이라고 여겨져 왔다(Yeaxlee, 1929). 평생학습의 양대 전략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직적 통합과 학교라는 형식교육에서부터 가정의 무형식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수평적 통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생 학습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은 더불어 학습하는 존재이다. 시민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또 하나의 학습공간으로서 주목받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협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미래융합원 전문연구원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heesu@cau.ac.kr)

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2000년대 말 이후 정부와 시민 사회 영역에서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질서 및 삶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Torres, 2013).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적 경제 담론과 연구 활동이 논의되었다. 관련 연구도 제도적 차원, 경영·조직적 차원, 역사·운동론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윤길순, 최우식, 2015). 이러한 연구 흐름 가운데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학습 현상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와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성인의 학습이 삶터 및 일터, 사회참여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을 학습공간으로 재조명하고 협동조합 내에서의 교육활동과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대중, 2011; 윤길순, 최우식, 2015).

교육의 장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인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에서도 나타났다. 1844년 설립 초기 매일 밤 조합원들이 일을 마치고 난 뒤 조합에 모여 뉴스를 듣고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이었다(Holyoake, 1893). 당시 조합원들은 교육이 특권층에게만 제공되는 사회를 비판하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이 근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매출액의 일정 정도를 교육에 할애하였으며, 조합원과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강하게 갖고 있었다(Cole, 1944).

이와 비슷하게 1920년대 말 캐나다의 ‘안티고니쉬 성인교육 운동’에서도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교육 수단으로 삼았다(구정욱, 2016; Crane, 2001). 이 운동을 이끈 코디 신부는 교육은 삶을 풀어나가는 도구이므로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현우, 2001). 그 후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40년대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역 노동자들의 빈곤한 삶, 실업,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 호세 마리아 신부가 설립하였고,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운동을 강조하였다(김성오, 2012).

한국의 경우, 1933년에 설립된 ‘조선 여자 소비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과 방향 중에 야학을 설립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양 교육과 문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문서화하였다(김형미 외, 2012). 또한,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은 1962년 협동교육원을 설립해 지도자 및 임원, 조합원 교육 강습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강승희, 2010). 생협은 당시 협동조합교육을 실시한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로 규모는 작지만 협동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한 성인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황종건, 1980). 1970년대에는 소비협동조합운동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부들의 공동구매클럽은 협동사업을 경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었다(김형미 외, 2012).

이처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당시의 빈곤이라는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사업을 펼친 하나의 성인교육 기관이다(Applebee, 2000). 맥락은 다르지만 오늘날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합원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성인학습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주목 받고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Ratnam과 Jain(2002)은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고, 여성활동가에게 필요한 사회 재진입 전략을 제안하였다(Kyrgidou & Petridou, 2013; Ratnam & Jain, 2002; Oerton, 1997).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공동체 활동에 주목하여 교육적 함의를 탐색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학습이 일어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강대중, 2011; 정경순, 2014). 이에 대해 강대중(2011)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교육을 대체하여 평생교육의 담론이 정부 정책과 평생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동안 협동조합의 터진인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같은 연구에서 강대중(2011)은 사회적 기업 내에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교육장치(educational apparatus)’라는 개념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개념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차원의 제도를 의미하지만,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공동체 참여자들에게는 공동체 활동 경험을 통해 구축한 활동 기제로서의 교육장치(education system)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연구는 생협과 같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Dirx, 2006; Keily, 2005). 경력이 단절된 원인과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Dirx, 2006). 경력단절여성 당사자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 전환학습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평생학습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Dirx, 2006; Mezirow, 2000; Keily, 2005). 생협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은 평생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활동의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유기적인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요소가 의미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Dirx, 2006; Eyler & Giles, 2004).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의 한 이론인 전환학습 개념에서는 학습자의 행동 개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선행조건과 실질적인 행위과정, 결과로 구분하고, 이들의 구성요소를 구조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Keily, 2005). 선행조건은 생애사, 무의식, 관계성, 특정집단, 맥락, 사회적 가치, 권능 등을 말하며, 학습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Mezirow, 2000; Keily, 2005). 실질적인 경험은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의 심적 변화 양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외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Mezirow, 2000).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활동을 거쳐 자아실현, 시민의식 함양, 도덕성 개선, 지적 활동 유지 등을 강화하게 된다(Eyler & Giles, 2004). 특히, 질적 사례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전략이 연구대상의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Lincoln & Guba, 1985).

지금까지 선행 연구의 검토내용을 수렴해본 결과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구성요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강대중 2011).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평생학습공간 내에서의 학습활동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협이라는 공간에서 경력단절여성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 평생학습모형의 구조적인 요소가 이들에게 작용하는 체계적 설명모형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Dirkx, 2006). 셋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생협 내의 특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대해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승희, 2010; 강대중, 2011; 윤길선, 최우식, 2015). 이에, 생협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와 이러한 각 모임들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반영한 학습활동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가지는 개념적 의미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Eyler & Giles, 2004; Mezirow, 2000; Keily, 2005; Lincoln & Guba, 198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생협의 활동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활동 경험을 분석하여 생협의 학습공간 내에서 학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밝혀내고, 평생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 생협활동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성을 참여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교육장치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 분석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의 4대 생협 중에서 ‘아이쿱생협’과 ‘한살림생협’에 대한 사례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는 연구 소재가 되는 구체적 현상이나 사회적 단위, 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층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례 선정 시 주요 기준은 첫째, 연구해야 할 현상, 행동, 행위자들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가능할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제공이다. 둘째,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하거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경계를 갖는 사례이다(Merriam,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4대 생협 중에서 활동가들의 활동

이 제일 활발하다고 경계지워져 있는 ‘아이쿱생협’과 ‘한살림생협’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례 연구 형태를 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생협에서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는 일반 조합원을 제외하고, ‘아이쿱생협’과 ‘한살림생협’의 교육 및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생협 활동이 주를 이루는 여성활동가 7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초기에는 연구자가 생협의 활동가로 있었을 당시 같은 동료로서 현재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 위주로 섭외를 하였다. 보다 풍부한 사례를 확보하고자 인터뷰에 참가한 참여자나 생협 조합원인 지인을 통해 다른 활동가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확대해나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이사장 및 이사, 각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지기 및 조직 활동가, 위원장이며,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를 계기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어린 자녀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각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역은 표시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소속	직급	활동기간	연령	학력	경력단절기간	평균 활동/주
연구참여자1	아이쿱	물품위원장	6년2개월	48	대졸	6년	5시간
연구참여자2	아이쿱	이사	5년6개월	44	대졸	15년	10시간
연구참여자3	아이쿱	상임이사	6년	42	대졸	10년	48시간
연구참여자4	아이쿱	이사	3년10개월	43	석사	12년4개월	10시간
연구참여자5	아이쿱	이사장	10년	51	석사	4년	50시간
연구참여자6	한살림	조직활동가	11년3개월	51	전문대졸	10년	25시간
연구참여자7	한살림	마을지기	7년	44	전문대졸	17년10개월	5시간

## 2.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은 2018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활동을 배려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으며, 장소는 주로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생협의 사무실 혹은 근처 도서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과 동시에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조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기록될 것임을 설명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생협 가입 동기, 활동 시작 계기, 생협 활동의 결과와 의미, 활동가들에게 생협 공간의 의미등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면담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단순히 여성들의 생협 활동 경험을 서술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생협 내의 학습 활동 양상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질적 연구 방법의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핵심은 자료에서 드러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내는데 있다(김인숙, 2016).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은 현상을 개념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에서 패턴과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주제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귀납적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주제 분석은 자료 분석의 과정이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료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김인숙, 2016; Creswell, 2012). 자료에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패턴과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분석과정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분석 절차를 수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낸다. 단, 무조건적으로 면담자의 의견을 결과로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요약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조화하였다. 이는 생협이라는 활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일면담자의 일방적인 태도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찾아낸 문장들을 내용별로 범주화한다. 범주화는 대부분 명사형으로 명명하였고, 주제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그 의미를 중심으로 되도록 면담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범주화하였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셋째, 범주화한 것을 구조화하여 적합한 주제(theme)를 부여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용어로 명명(labeling)한다. 주제는 순번으로 구분하였고, 핵심용어는 면담자의 언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쳤다. 왜냐하면, 범주화한 용어들의 구체적 특성에 비해 이를 포괄하는 핵심용어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서사적 구조로 재구성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서사적 기술은 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을 명명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모형의 설명에 적합한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 검토는 판단중지(epoche)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두 명의 박사급 인력의 평가자간 합의점을 고려하여 문장 선별을 진행하는 평가자간 삼각구도법(triangulation)의 타당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생협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앞서 요약한 질적 사례연구 모형의 구성요소와 병행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7가지의 구조적 요소를 구성하였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7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설명하였다.

#### 1. 모임에 나가는 계기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는 “외부와의 단절, 고립으로부터 탈출하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생애사건 중의 하나인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 생협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가입을 한다. 이들은 건강한 식재료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는 엄마로서 소비자로서 존재하다가, 생협에서의 모임 안내 문자를 시작으로 모임에 대해 궁금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더불어 생협 물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적인 동기가 중층적으로 작동하여 모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를 가입시키면서 마을모임도 있으니깐 한번 나가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여긴 마을 모임은 언제 하나요. 시누이가 마을모임이 굉장히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들 하고 있다. 아마 언니네 동네들도 하고 있을 거다. 한번 알아보라 해서 했죠. (연구참여자 2, 면담일자 2018.10.25.)

그렇다고 해서 생협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안내 문자를 받고 모임에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에 나가는 보다 본질적인 사적 동기는 육아로 인해 느끼는 사회와의 단절감, 고립감, 소외감으로부터 탈피하여 세상과 소통하려는 ‘탈출’의 욕구가 연구참여자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다보니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이전의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물론,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소속이 존재하지만, 가족 관계를 넘어선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속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애를 키우면서 대개 많이 고립이 되잖아요.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애 데리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늘 문화센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저는 이미 청년회 활동을 길지는 않지만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내 정

서에 맞고 내가 편하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쪽은 내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게 힘들고 우울감을 느낄 때가 소속감을 잃었을 때라잖아요. 가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소속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협 활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뭔가 소속감을 주고, 근데 그 소속감이라는 게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뭔가가 아닌 공익적인 의미의 소속감이라고나 할까. (연구참여자 1, 면담일자 2018.10.04.)

결과적으로 모임 참여 계기는 소속감 욕구, 사회활동참여 욕구, 소외감 극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출’이라는 사적 욕망을 충족하고 참여를 통해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기에 연구참여자들이 마을모임에 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 마을모임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주제는 “생협 활동과 학습의 토대는 마을 단위에서 마련된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협활동참여는 마을모임이라는 생협의 기본 자치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협에서의 기본 자치 모임은 마을모임과 동아리이다. 마을 모임과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친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모임의 운영은 마을지기가 담당을 하는데, 필요시 이사장이나 이사가 마을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한다. 마을모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안건지를 통해 그 달의 생협 사업이나 행사, 물품,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마을모임에 나오는 것 자체도 교육의 하나잖아요. 자그마한 안건지 삼십분에서 1시간 하지만 그 중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 이상 있는 거니까. 사실은 웃고 떠들고 가면 그게 일반 친목모임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물품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공익적인 것들을 생협이 할 수 있고, 작지만 짧은 교육들로 인해 이 모임이 단순한 것 같지만 가치가 있다. 거기 가면 뭐라도 하나 듣고 오니까 저처럼 동기 부여를 받은 사람들은 조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면담일자 2018.10.12.)

따라서 마을모임의 특성은 활동과 학습의 토대, 생협의 자치 모임, 매월 정기 모임, 참여의 채널임을 알 수 있으며, 회의와 학습이 수반된 마을모임을 통해 보다 내적으로 동기 부여를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단순 모임참여자에서 활동가로 변모하게 되는 소통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활동가로서의 변모 과정에 교육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서 학습자로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본격적인 생협 활동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주제는 “활동 안에 학습이 배태되어 있다.”이다. 생협에서의 기본적인 활동은 회의 실시, 모임 참여, 조합원 참여 행사, 공식적인 교육 참가, 조직활동 및 강사활동이다.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생협의 모임에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모임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역할에 따라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조합원 참여 행사는 일반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생협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교육은 마을모임 참여와 교육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생협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며, 활동가 입문 교육, 식생활교육, 공정무역교육, 이사회 코스 교육, 이사 교육, 이사장 교육이 활동가 단계별로 제공되고 있었다.

#### 가. 회의 실시

회의는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과 위원회, 이사회로 나눌 수 있다. 회의에서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생협 차원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대해 각 지역 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조합원 참여 행사나 교육은 어떻게 할지, 각 활동팀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학습이 동반되기도 하며, 특히 이사회학술회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학습 내용은 공신력 있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년에 언 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이사는 이사회학술회도 계획을 하거든요. 우리 이사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책을 선정하고 읽고, 이것보다 더 급한 현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좀 바꾼다던지. (연구참여자 3, 면담일자 2018.10.16.)

#### 나. 모임 참여

생협 활동의 기본은 각 모임에의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 모임은 마을모임을 기본으로 구성원들의 취미를 중심으로 한 모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과 같이 나눔 활동을 하는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각종 활동과 학습이 수반되는 모임의 성향을 갖추고 있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발췌를 해서 냉장고에 붙여서 조합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각 모임이나 분과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하고 생협 소식지에도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곁해서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고.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 다. 조합원 참여 행사

조합원 참여 행사는 일반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직접 만나 생협 의미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산지체험, 도농교류, 캠페인, 조합원 강좌 등이 있다. 산지체험과 도농교류, 캠페인은 사전에 학습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비형식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자원순환 보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TF팀도 만들고 대표자도 있지만 연합회랑 조인해서 하기도 하고. 사실, 자원순환은 타 생협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타 생협의 정책토론회도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을 조인해서 (캠페인)을 하게 되죠. (연구참여자 2, 면담일자 2018.10.25.)

## 라. 공식적인 교육 참가

생협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인 교육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연구참여자의 활동의 의미를 깊게 함과 동시에 활동성을 넓혀가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활동가 입문 교육, 식생활교육, 공정무역교육, 물품 교육, 이사회 코스 교육, 이사 교육, 이사장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단계별 교육도 있구요. 활동가들 처음에 하면 입문 교육이 있구요. 조직 활동가든 매장 활동가든 입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1, 2, 3, 4년차. 그거 지나면 음. 자신을 리플레쉬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몸살림, 마음살림처럼 외부 기관도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많구요. 생산자들이 오셔서 하는 교육도 있고, 물품 교육도 많고.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 마. 조직활동 및 강사활동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조직활동에 들어간다. 공식적인 교육인 식생활강좌, 공정무역강좌, 물품 교육을 통해 강사활동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활동과 강사활동은 연구참여자가 배운 것들을 다시 생협 및 생협 외 다른 학습공간에서 가르침으로 활용하는 교육활동에 포함되고 있었다. 학습과 활동이 수반된 조직활동과 강사활동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활동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생협 활동 중의 하나이며,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학습활동이 생협을 학습공간으로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사실을 할 수 있다.

모임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도움이 되잖아요. 동아리 형태로 도움

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줄 수도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조합원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5, 면담일자 2018.10.11.)

#### 4. 활동의 긍정적 의미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주제는 “나의 성장, 그리고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을모임의 단순 참여에서 시작하여 회의 실시, 모임 참여, 조합원 참여 행사, 공식적인 교육 참가, 조직활동 및 강사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모임의 단순 참여자에서 활동가로 성장해 갈 때 교육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 및 활동 경험들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내적 성장 및 변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지적인 역량 강화

생협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지식을 넓혀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이 갖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주로 생협의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생협 내에서의 지적 활동은 활동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유키농? 이 정도로만 알았고요. (생협)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생협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의 좋은 점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체화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 나. 기술적인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문서 작성 및 요약, 강의 능력 향상과 같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보였다. 오랫동안 주부 생활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었던 자신감, 적극성,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역할 수행을 통해 리더십이나 문제해결능력도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처음에는 애들 앞에서 하는 게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자연스럽게 말도 안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애들과의 관계도 대개 자연스러워지고, 강의할 때 내 말투도 자연스럽게 편하고. (연구참여자 1, 면담일자 2018.10.04.)

## 다. 내적인 성장 및 변화

협동조합 활동과 교육의 과정에는 다양한 삶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활동과 교육이 거듭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사람은 왜 저걸 못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커진 것 같고. (연구참여자 5, 면담일자 2018.10.11)

## 라. 새로운 목표

교육을 포함한 많은 활동 속에서 자신을 변화, 성장시켜가는 한편, 새로운 고민의 지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 안에서 생협이 공동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점차 이게 생각한 만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크기는 \*\*구? 아니면 우리 동네만이라도 좀 더 이렇게 사람살기 좋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쉬운 공동체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연구참여자 4, 면담일자 2018.10.12)

## 5. 활동의 부정적 의미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주제는 “갈등과 한계에 부딪히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생협 활동에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도 하지만, 갈등 상황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조합원의 참여 부족으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생협 활동 자체가 가져다주는 한계 때문에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조합원 참여 부족

생협 활동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합원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단순 소비자로서의 조합원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삶이 바쁘고, 조합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탓에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활동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안 오죠. 많으면 15명? 예전에는 생협에서 하는 강의가 지역사회에서는 특이하고 식품안전교실, 식품첨가물 교육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워낙 저명인사도 많이 오고 초청도 많이 하니까 내가 생협 말고도 다른 교육을 하는 공간이 많아져서. 그래서 굳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면담일자 2018.10.16.)

#### 나. 자신의 내적인 문제

활동과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과 기술 함양이 되었으나,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활동에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 자체가 힘들거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이 활동에서 요구될 때 힘들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협 활동 조금 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버겁더라고요. 활동 자체가 뻑해서 버겁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생활 강의 나갈 때) 동네에서 장을 봐서 손질을 해서 가는데 내가 빼먹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요리를 잘 하는 것도 아닌데, 식생활 강사와 요리사는 다른데 나한테 요리사를 원해? (연구참여자 7, 면담일자 2018.10.30.)

#### 다. 협동조합 활동 자체의 한계

생협은 사업체인 한편으로 운동성을 가진 조직체인 탓에 연구참여자의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 번째는 연구참여자들의 활동 특성이다. 생협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가깝다. 차비와 식비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두면 생협 내에서 그 존재가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 내에서 민주주의 운영 원칙으로 인하여 때로는 일을 처리하거나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활동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다. 세 번째는, 지역 조합에는 직원들이 없다. 상근자인 직원들이 사무적인 일이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해 준다면 보다 활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고 취합해서 그게 올라가고. 그리고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대처가 느리고 이런 것들이. 활동을 알면 알수록 깊숙이 조직에 들어올수록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바라 볼 때는 좋게 보이다가 알면 알수록 안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뭐.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 6. 강화 교육장치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여섯 번째 주제는 “지속적인 활동의 버팀목은 교육과 사람이다.”이다. 생협에서의 활동성은 동료들의 지지, 공식적인 교육, 역할 부여, 학습과 활동 공간의 제공에 의해 더욱 더 촉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생협활동경험을 통해 구축한 교육체계로서 교육장치(education system)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 가. 동료들의 지지

연구참여자들이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생협이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꿈꾸며 이야기하며 활동을 이끌어 주는 선배와 동료들이 항상 옆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연구참여자에게 큰 재산이며 활동을 재생산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의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역조합에 와서 모습은 달라졌어도 이전의 연합회 활동에서 받았던 좋은 생각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활동을 쉽게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고 잘 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면담일자 2018.10.11.)

### 나. 공식적인 교육

생협의 공식적인 교육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우수한 강사진, 반복되는 교육, 끊임없는 워크숍 등이 있다. 이런 교육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찾아가고 배운 것을 다시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도 있구요. 두 번째는 워크숍 진행을 진짜 일 년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라던지 어떤 데서 끊임없이 매년 조직에 대해 생각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연구참여자 3, 면담일자 2018.10.16.)

### 다. 역할 부여

생협 내에서 역할 부여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며,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 사람들과 물건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몇 번 마을모임을 하다보면 대의원을 한 번 해봐라. 마을지기를 해봐라. 필 하라 필 하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연구참여자 2, 면담일자 2018.10.25.)

## 라. 활동과 학습의 공간 제공

연구참여자들이 활동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생협의 공간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활동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생협이라는 무대는 기업이 아니다. 일반적인 직장과는 달리 시간적인 구속을 덜 받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혼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생협 활동을 통해 배양된 역량을 펼치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셋째, 연구참여자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어.. 중산층 여성들이 새로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뭐 고학력에 여유로운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연구참여자 5, 면담일자 2018.10.11.)

## 7. 격려 교육장치

이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는 “슬럼프 극복의 핵심 기제는 교육과 사람이다.”이다. 격려 교육장치도 강화 교육장치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사람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은 다양한 삶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학습하는 공동체 조직이다 보니 갈등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생협 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은 교육, 동료와 가족들의 응원, 전환적 사회 활동 참여, 연구참여자 본인이 내적으로 정리하고 수용하면서 해소해 나간다. 따라서 갈등 상황과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생협 안팎에서의 활동은 활동의 한계점을 채워 나가고 활동을 다시 재생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협동조합 기초 교육

활동의 목적이나 기대감의 차이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생협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교육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나 건강한 조직 문화와 관련된 협동조합 기초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활동에서 상기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동료들 하고.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적으로는 교육이나 학습? 물론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죠.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 나. 동료와 가족들의 응원

활동에서 느끼는 의문점이나 고민은 선배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어가기도 하고, 문제를 정리해 나가기도 하였다. 선배와의 대화 속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선배가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활동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이해와 응원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 때) 사실 저는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개 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예요. 보니까 모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는 것 같아요. 거절도 못 하고. (연구참여자 2, 면담일자 2018.10.25.)

## 다. 전환적 사회 활동

생협은 교육 활동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다른 사회적 공간에서 교육을 듣거나 다른 기술을 배우면서 채워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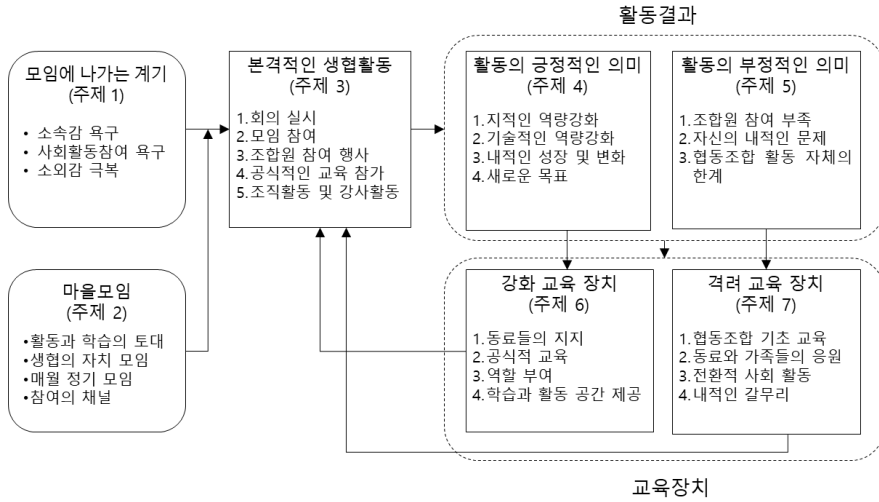
수녀님이랑 같이 하거나 거의 혼자 하고. 봉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매가 있고. 거기에 가서 마음을 위로받고 내용적인 면은 잘 몰라도 서로 힘들음 보듬어 주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4, 면담일자 2018.10.12.)

## 라. 내적인 갈무리

생협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사회적 실천을 행하는 공동체이기에, 장시간의 활동과 경험은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으로 사람들의 다양성과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마음을 새로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조직이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 때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잘 갈무리해서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내 자신이 우선 단단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구요. (연구참여자 6, 면담일자 2018.11.08.)





[그림 1] 생협의 교육장치에 나타나는 기능 및 체계적 모형의 도식

지금까지 도출한 7가지 구성요소 및 주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생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장치와 기능적 체계를 순환적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생협 활동 패턴은 모임에 나가는 동기가 작용하여 생협의 기본조직인 마을모임에 나가게 된다.” “마을모임 참여를 통해 학습 동기 부여를 받은 사람은 본격적인 생협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본격적인 생협활동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았을 경우, 생협의 강화 교육장치에 의해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를 찾았을 경우, 격려 교육장치에 의해 활동이 격려되어 유지된다.” 아울러, 생협활동의 결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생협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 경험에 의해 구축된 활동체계를 본 연구에서는 교육장치(education system)이라 명명하였고, 이 장치는 생협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로서의 생협에 초점을 맞추어 경력단절여성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생협의 활동 영역 내에서 학습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협 교육활동의 평생교육학적 함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생협 활동에 참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동기 면에서 다양한 계기가 나타났다. 마을 모임적인 특징이 강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적 관심사에 대한 본위적인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획일적이거나 특정 목표를 근거로 시작하는 활동이라기보다 삶의 가운데서 삶의 다원성을 추구하는 공정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비경쟁 모형의 공동체적 조직활동으로 해석된다(오혁진, 2014; 정경순, 2014, Cole, 1944). 생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공간의 특성과 공동체적 시스템의 접목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생협 활동 참여는 연구참여자에게 내적인 성장 및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결과적으로 활동 이후 참여자들은 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였을 때, 자기실현적인 관점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협 활동에의 참여는 일반 기업의 도구적 맥락보다 자기실현 가치 중심의 활동을 의미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진다(정경순, 2014; Holyoake, 1893; Scott, 1998). 이는 평생교육의 관점과도 매우 동질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생협 조직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실현적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생협 활동과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생협 조직 내에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장치의 개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결과에 따라 이중시스템의 방식으로 교육장치가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생협 활동에는 과거 생산중심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김정희, 2001; 백은미, 2012; 이현희, 2004; 최선주, 2005; Cole, 1944). 따라서 생협 활동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삶과 직결된 교육장치를 마련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활동과 교육장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향적인 피드백이 아닌 매우 개인적인 만족에 대한 귀인 현상이 나타났다. 회의나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장치의 도움 과정에서 성과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 관계적인 측면이 자신의 활동 역량 강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간중심의 판단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휴머니즘 특성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정경순, 2014; Darkenwald · Merriam, 1982; Scott, 1998). 달리 말하면 생협이라는 평생학습공간에서 나타나는 활동 전반에 걸쳐 인간중심 판단 체계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협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 중심이 아닌 평생교육적 휴머니즘 관점의 철학을 반영한 시스템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ubenson,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협 활동 경험이 평생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장치와 같은 다양한 개념이 도출되었다. 추후 이러한 관점의 도식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다차원적인 주제화

과정을 확장한다면 생협 활동에 대한 가치를 세밀한 부분까지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은 사회적 젠더 격차(gender divide)현상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Babcock & Laschever, 2009),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증진하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대중 (2011). 사회적기업과 평생교육학. **평생교육학연구**, 17(1), 1-24.
- 강승희 (2010). 한국 신용협동조합운동 50년. **한국협동조합연구**, 28(1), 147-169.
- 구정옥 (2016). 안티고니쉬 성인교육운동의 한국적 적용: 1960년대~ 70년대 협동교육 연구원 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 34(2), 143-169.
- 김성오 (2012). **몬드라곤의 기적: 행복한 고용을 위한 성장**. 서울: 역사비평사.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정희 (2001). 글로벌라이제션과 한국의 도시 지역 여성운동: 수도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8, 133-154.
- 김현우 (2001). 캐나다 성인교육 연구: Antigonish Movement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9(4), 73-92.
- 김형미, 염찬희, 이미연, 정원각, 정은미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개**. 과 주: 푸른나무.
- 백은미 (2012).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가치에 대한 의미고찰: icoop생협 부산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2), 71-107.
- 오혁진 (2014).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집문당.
- 윤길순, 최우석 (2015).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경제평론**, 47, 279-340.
-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21(2), 111-150.
- 정경순 (2014). 사회적 경제와 평생교육의 연계: 대안운동과 학습의 접합. **평생교육학연구**, 20(1), 189-211.
- 최선주 (2005). 지역공동체운동의 학습네트워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YMCA 생협 '등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종건 (1980). **지역사회와 교육**.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Applebee, G. (2000). Cooperative extension. In A. Wilson, & E. Hayes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p. 408 - 42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bcock, L., & Laschever, S. (2009). *Women don't ask: Negotiation and the gender div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Cole, G. D. H. (1944). *Century of co-operation 1844-1944*. London, UK: George Allen and Unwin for the Cooperative Union Limited.
- Crane, J. M. (2001). Moses Coady and Antigonish. In P. Jarvis (Ed.). *Twentieth century thinkers in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p. 223-241). London: Kogan Page.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s Angeles, CA: Sage.
- Darkenwald, G. G., & Merriam, S. B. (1982). *Adult education: Foundations of practice*. New York: Ty Crowell Co.
- Dirkx, J. M. (2006). *Engaging emotions in adult learning: A Jungian perspective on emotion and transformative learning*. In E. Taylor (Ed.). *Fostering Transforma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Challenges and Innovations*. New Directions in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o. 109 (pp. 15-26).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Eyler, J., & Giles, D. E. (2004). J.(1999).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olyoake, G. J. (1893). *Self-help by the people: The history of the Rochdale pioneers*. London: Swan Sonnenschein.
- Kiely, R. (2005). A transformative learning model for service-learning: A longitudinal case study.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12(1), 5-22.
- Kyrgidou, L. P., & Petridou, E. (2013). Developing women entrepreneu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hrough e mentoring support.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3), 548 - 566.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ezirow, J. (2000).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Oerton, S. (1997). Gendered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An Analysis of Workers' Experience in UK Cooperative and Collective Organization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8(2), 201-229.
- Ratnam, C. S. & Jain, H. C. (2002). Women in trade unions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3(3), 277-292.

Rubenson, K. (2009). Lifelong learning: Between humanism and global capitalism. In P. Jarvis (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pp. 411-422). New York: Routledge.

Scott, J. C. (1998).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orres, C. A. (2013). *Political sociology of adult education*. Rotterdam, The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Yeaxlee, B. A. (1929). *Lifelong education: A sketch of the range and significance of the adult education movement*. London: Cassell.

논문 접수: 2020년 5월 27일

논문 심사: 2020년 8월 1일

게재 승인: 2020년 8월 10일

<ABSTRACT>

**Cooperative as A Lifelong Learning Platform:  
Focusing on Cases of Career Break Women's Consumer  
Cooperative Activities**

**Lee ryowhoa**(Chungang University)

**Lee heesu**(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ctivities developed in consumer cooperatives and analyzed the meaning of lifelong educ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breaks in the lifelong learning platform called the consumer cooperative, and included thematic analysis in the analysis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pic suitable for 7 elements (momentum, meeting, activity, positivity, negativity, reinforce, and encourage) experienced by women with career breaks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activities was drawn.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system was applied to diagram the functional phenomenon. In addi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felong lear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cooperative were discussed, and policy suggestions and follow-up studies to supplement them were discussed.

★ **Key words:** consumer cooperative, career break women, educational system, lifelong learning platform